수원사랑

2015 봄 Vol. 251

SUWON CULTURAL CENTER
수원문화원

수원사랑

제자 : 근당 양택동 (한국서예박물관장)

표지 봄을 알리는 작은 새 한 마리 | 박주만(작가)

| 꽃봉오리가 피어오른 수원화성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지배배 봄소식을 전한다.

수원사랑 통권 제251호

발행일 2015년 2월 28일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장기문 **편집주간** 정수자
편집위원 조형기, 김준혁, 이형복 **편집기자** 김민서 **발행처** 수원문화원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전화 (031)244-2161~3 **팩스** (031)244-2164
등록번호 2-2-42 www.suwonsarang.com **편집디자인** 유승 (031)207-3370

차례

■ **화보**
유신고등학교 담벼락에 만개한 개나리 ····· 임열수 2

■ **권두칼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 장기문 4

■ **시 속의 수원을 거닐다**
진달래빛 참 봄을 꿈꾸며 ····· 정수자 6

■ **특집 – 수원의 서양음악**
Ⅰ 수원의 서양음악을 이끌어온 작곡가들 ····· 주용수 12
Ⅱ 수원시립예술단의 발자취 ····· 김상용 16
Ⅲ 음악제로 본 수원의 서양음악 ····· 류설아 20
Ⅳ 수원의 서양음악을 이끌어온 사람들 ····· 한윤희 24

■ **수원의 재발견**
개혁 농법을 만든 최초의 저수지 만석거 ····· 김준혁 28

■ **수원의 길**
수원의 팔색길, 제5색 도란길 ····· 김영호 32

■ **수원 사람을 찾아서**
협궤열차 수인선(水仁線), 낭만을 추억하다 ····· 송시연 36

■ **수원의 최초**
수원에서 불린 수원의 노래 ····· 한동민 40

■ **수원의 만남**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라 ····· 이형복 44

■ **수원에서의 첫날밤**
우리 가족의 파장동 걸음마 ····· 윤유석 48

■ **사건으로 본 수원**
김두한, '협객(俠客)'의 정치인생과 수원 ····· 이동근 52

■ **수원의 추억**
옛날 팔달산의 추억 ····· 박찬진 56

■ **판, 팬(fan), 펀(fun)**
배구,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선회 60

■ **마을만들기**
태장동 마을만들기, 100년 역사를 이어가다 ····· 류현희 64

■ **소식&안내**
문화원이 한일 & 할일 ····· 68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장기문 | 수원문화원 부원장

꽁꽁 얼어붙었던 광교산 계곡에도 얼음판 밑으로 물방울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고 시리게 한 노란 리본을 애써 덮으려는 긴 겨울이 물러나고, 서서히 봄을 맞이하려는 풀 나무들의 꿈틀대는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해맞이 경축 타종부터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광교호수공원 뮤직페스티벌, 제11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제51회 수원화성문화제 짚신 신고 수원화성걷기, 수원사랑 큰잔치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은 행사는 없었습니다. 준비위원회의에 또 회의를 거쳐 기획하고 섭외하고 행사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짚신 신고 수원화성걷기가 2014 대한민국문화원상 우수프로그램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문화의 계승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대보름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과감히 수정하였습니다. 구별·동별 대항 윷놀이·연날리기 대회에 동별 인원 모집을 없애고,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로 대처하여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발적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스 설치를 기획하여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울리는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수원문화원 기획공연 갈라콘서트 또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만석공원을 가득 메웠고, 제11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는 청소년 프로그램 국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기존 창덕궁에서 출정식을 가졌던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학부모와 함께 수원문화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정식은 창덕궁에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례단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이 허가된 곳으로 준비 중이며 교통문제 역시 교통경찰과의 적극 협조하여 차량통제가 완벽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20만 문화 도시 수원의 수원문화원에서 연간 30회의 문화행사를 주관했으며, 염상덕 원장님의 집념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100여 회의 인문학 역사탐방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을 수원문화원 권선구 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학교와 동아리반 운영을

시작하여 고색동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45년간 팔달산 중턱에 위치하면서 문화원이 자리한 현 시민회관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을 보수하여 시민에게 전면 개방함으로써 질 좋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정조가 개혁의 시범도시로 건설한 수원화성은 2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원시민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이 정조의 실학정신으로 구축된 도시라는 것쯤은 다 알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에 대하여 우리 문화원은 인문학탐방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과 효 정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 한해 전통과 문화계승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너무도 슬픈 사실

–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

박 팔 양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녈픈 꽃을
이른 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로 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외다
백일홍같이 붉게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와 같이 오래 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 것이외다

친구께서도 이미 그 꽃을 보셨으리다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도 전에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 쓸쓸하게 피어 있는
봄의 선구자 연분홍의 진달래꽃을 보셨으리다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외다
그는 봄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예언자이며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는 선구자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지는 그 엷은 꽃잎은
선구자의 불행한 수난이외다

어찌하야 이 나라에 태어난 이 가난한 시인이
이같이도 그 꽃을 불들고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구자들 수난의 모양이
너무도 많이 나의 머리 속에 있는 까닭이외다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외다
백일홍같이 붉게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와 같이 오래 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 것이외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오라는 봄의 모양을 그 머리 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것이외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 『학생』(1930. 4)

진달래빛 참 봄을 꿈꾸며

정수자 | 시인

우리네 봄을 여는 꽃이라면 단연 진달래다. 흰 눈을 쓴 채 피어나 사랑받은 매화도 있지만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적셔야 비로소 봄이다! 싶다. 진달래를 참꽃으로 따먹던 시절의 추억 때문만은 아니다. 배고픔의 어지러움을 붉은 어지러움으로 물들이던 기나긴 봄과는 완연히 다르건만 진달래에서는 민족의 눈물 같은 게 여전히 풍기는 것이다.

진달래는 또 수원의 꽃, 봄 내내 곳곳에 꽃대궐을 차린다. 팔달산, 광교산, 여기산, 숙지산, 칠보산에도 분홍대궐을 불긋불긋 차려 놓는다. 그럴 줄 짐작이나 했을까, 일찍이 진달래를 높이 외친 수원 출신 시인의 시가 우리를 다시 깨운다. 진달래꽃을 선구자의 넋으로 치키는 시적 흥취 속에서 무슨 진취마저 부르르 불러일으키곤 한다.

진달래는 봄의 선구자

시인은 수원군 안룡면 곡반정리 출신의 여수(麗水) 박팔양(朴八陽, 1905~1988)이다. 그는 아버지[박제헌]가 넉넉지 못한 양반관료임에도 어려서부터 서울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그 덕에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더 만들었는데, 시인으로서의 활동은 최초의 사화집인 『폐허의 염군[廢墟-焰群]』(1923)을 내며 본격화했다.

초기의 박팔양은 감상적 낭만주의 풍과 모던한 도시적 감수성을 오가며 서정적 세계를 담아냈다. 그러면서 문학의 예술성이며 시의 미적 자율성에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라는 상황은 박팔양을 예술성보다 현실주의적 사회주의 쪽으로 이끌었고, 더 급박하고 혁명적인 내용을 추구하도록 추동했다.

그런 특성은 이번에 함께 읽는 「너무도 슬픈 사실-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에 잘 나타난다. 감상과 낭만과 열정이 어우러지는 한편 변혁에 대한 시적 주체의 꿈이 시적 감흥을 고취한다. 무엇보다 '진달래' 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과 대조적인 남성적 어조가 읽는 이의 가슴에 불을 지르며 흥취를 일깨운다. 더욱이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는 구절은 한번 읽으면 그대로 가슴에 콱 박히는 무슨 정언명령 같은 힘을 지닌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시인은 서러움의 정서를 뜨겁게 터트리며 그리 힘차게 내달은 것이리라.

박달양 생가(수원시청 제공)

애틋한 고향의 모습과 마음

박팔양은 많은 시를 썼지만 수원 지명을 특별히 내세우는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 시편에서 "고향"이라고만 썼을 뿐, 특정 지명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향의 풍광을 묘사한 산문 「여름철과 나의 추억」『신민』 제16호, 1926. 7)은 박팔양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바라보며 걸었을 법한 곡반정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 고향은 서울서 南쪽으로 얼마 멀지 아니한 ××인데 그 邑에서도 山길로 約十里 가량을 드러간다. 드러갈 때에는 山길이지만은 드러가기만 노흐면 洞里는 압히훤하게 턱 터진 넓은 들로 向하고 잇다. 뒤에는 언덕, 압헤는 들, 그 가운데 내가 살든 村이 잇는데 그 압들에는 맑은 내(川)가 길게 흘러잇다."

이 대목은 들판이 넓어 '곡반정'으로 불려온 시인의 고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보다 감정을 절제한 느낌이지만 행간에서 고향을 대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시 「밤차」의 한 구절인 "비닭이집 비닭이장같이 오붓하던 내 동리"를 돌아보게 한다. '닭장'같이 가난해도 "오붓하던 내 동리"야말로 수원 곡반정을 껴안는 마음이자 당시의 헐벗은 조선 농촌을 향하는 애틋한 마음이리라. 그런 조선 민초들의 삶을 보며 그는 모두가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이 이루려던 세상은 어디 가고 박팔양은 분단된 북녘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시인의 집과 문화유산

지금 곡반정동에는 시인이 자랐다는 백부 집만 남아 있다. 그마저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인근이며 주변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그 집마저 헐리기 전에 매입해 수원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은 많이 오가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그래저래 그곳에 가면 빚진 마음 같은 게 묵지근히 따라다닌다.

진달래 같은 선구자들이 몸 바쳐가며 꿈꾼 세상은 왜 이리도 먼가. 하긴 '꿈은 이루어진다'도 실현 가능한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큰 꿈 앞에는 언제나 먼 이상이다. 그래서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추동하는 큰 이상으로 남아 있는 거겠지만-.

제4회 난파음

수원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회 난파음악제 모습
(1972년 9월, 『수원시민회관의 추억을 깨워라』, p.28~29)

| 특집 |

수원의 서양음악

수원의 서양음악을 이끌어온 작곡가들

주용수 | 한국복지대학교 모던음악과 교수

작곡가, 음악을 짓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음악은 민중의 전통적 음악 관념을 서구적인 감수성으로 변화시켰다. 서양음악이 조선에서 음악의 자리를 차지하자 작곡 전문가도 생겨났다. 음악의 기능적인 특성은 작곡과 연주로 나뉜다. 설계도가 건축물은 아닌 것처럼 악보의 상태도 아직은 음악이 아니다. 문학의 창작자가 독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음악은 연주자의 소리를 통하여 청중과 간접적으로 만난다. 낯설게 들리는 창작음악이라고 해서 특이할 것은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도 처음에는 창작음악이었다. 작곡가는 생각의 조각들을 의도적으로 구성한 후 연주자의 표현을 빌려 그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한다.

홍난파, 수원에서 태어나다

난파 홍영후 선생은 수원에 연고를 둔 작곡가로, 오늘날 화성시에 속하는 수원군 둔지곶면 활초리에서 1898년에 태어났다. 그는 일본의 우에노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동요 100곡집』을 출간했다. 1925년 〈연악회〉를 창단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잡지 『음악계』를 발행했다. 그는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고, 경성방송관현악단을 조직해 지휘를 맡았다. 미국 시카고에 체류할 당시 흥사단의 단가를 작곡해 주었다는 이유로 안창호, 이광수 등과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그는 1941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홍난파 부부와 장녀(송태옥 제공)

그가 수원 출신의 작곡가라고는 하지만 수원과 밀접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공식

기록은 거의 없다. 시대적으로 선두에 섰던 난파의 음악적 업적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1970년대 수원의 음악인들에 의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그는 1990년대에 이르러 친일 부역 논란의 중심에 섰고, 후손들에게 골치 아픈 논쟁거리를 유산으로 남기게 됐다. 친일 행위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죽임을 당하더라도 부역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논란으로 홍난파의 예술적 업적이 격하되지 않도록 앞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팔달산에 있는 「고향의 봄」 노래비(수원문화원)

이흥렬, 수원을 노래하다

이흥렬 선생은 수원에 음악적인 인연을 둔 작곡가라고 할 수 있다. 190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경성보육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작곡과 실내악 연주 활동을 했으며, 1936년에는 홍난파와 함께 경성방송관현악단을 조직했다. 숙명여대 음대 학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한국작곡가회 회장을 역임했고 1980년 7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한인현의 시에 곡을 붙인 「섬집 아기」는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노랫말에 담고 있어서 한국인의 향수를 자극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동요로 인정받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선생은 가족을 거느리고 걸어서 피난을 했다. 인민군의 남하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원 고등동에 머물렀다. 선생은 수원에서 오랜 기간 살았고 수원과 깊은 인연을 쌓았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차남 이영조 교수(現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영문도 모른 채 소풍가는 줄만 알고 따라나섰는데 수원에 오게 되어 신풍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수원에 살면서 팔달산에도 오르고 서호에서 고기를 잡고 멱도 감았던 이영조 교수가 60여 년이 지난 후에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관현악곡 「여명」(2012)을 작곡했으니 선생의 가족들에게는 수원이 새로운 고향이 된 셈이다.

이흥렬과 세 자녀 영희, 영금, 영조와 함께(1957, 이영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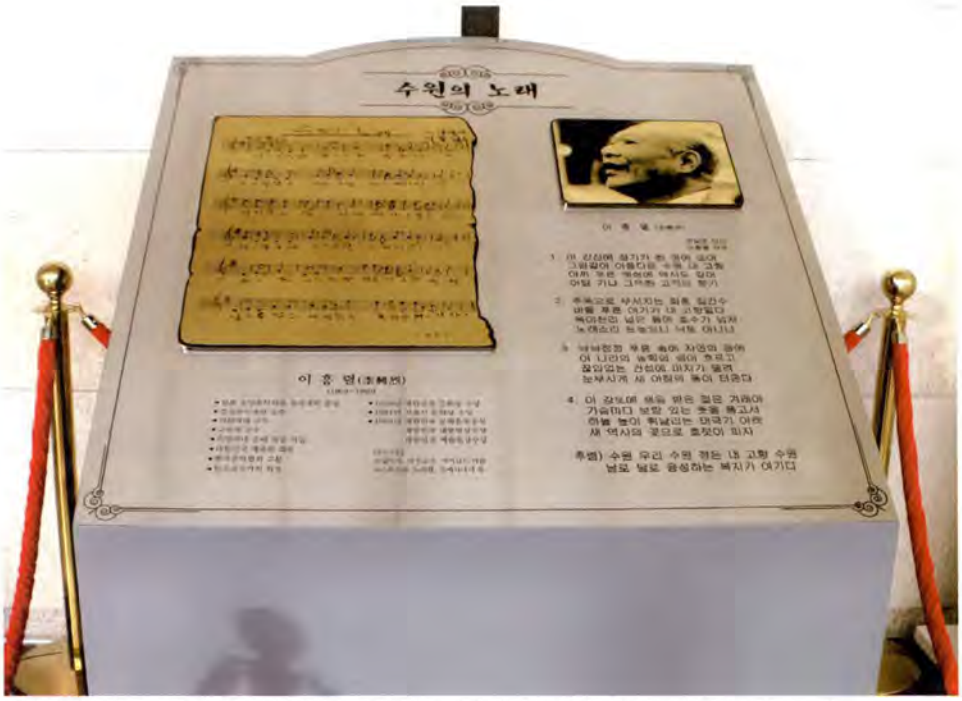
전쟁 중에도 선생은 수원 피난민촌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으며 수원 공군기지의 미군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다. 1953년에 그가 유달영의 시에 의한 「수원의 노래」를 작곡한 것은 수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 곡은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그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다. 「수원의 노래」는 6/8박자 위에 서정적인 가사를 얹은 것으로 굿거리장단이 연상되어 아주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 곡에는 당시타 도시의 시가(市歌)에 많이 쓰이던 군가나 행진곡 패턴의 리듬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선율도 지적인 현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영조 교수가 부친의 유품 중 수원시에 기증한 「수원의 노래」 친필 악보 원본은 수원 예술사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현대음악, 미래를 부르다

현대의 예술은 모든 장르에서 범시대적, 범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작곡가들은 시공을 넘나들며 특정한 사조나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을 하고 있으며, 동양과 서양,

순수와 대중, 조성과 무조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라는 개념들은 작품 속에서 탈이념적이고 범문화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수원의 음악은 1964년 수원음악협회가 창립된 이래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1980년대 초, 수원시립예술단의 창단으로 공연이 더욱 풍성해졌지만 창작음악의 생산은 절대적으로 빈약했다. 수원 주변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이 간헐적으로 작품을 수원의 무대에 올렸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기창작악회와 수원음악학회 등의 단체들이 수원에 와서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홍난파와 이흥렬이 지나간 후, 그 자리를 잇는 수원 출신의 작곡가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2014년, 수원의 창작음악을 위하여 이경우, 손정훈, 정승용, 주용수, 양승렬, 이효병, 유희선, 이애린, 양희주, 정혜은 등 수원에 연고를 둔 작곡가들이 중심이 되어 작곡가 단체 '수원창작악회'를 결성하고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제1회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수원 작곡가들의 의미 있는 시작은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창작음악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래 수원 음악에 생동감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로비에 있는 이흥렬 작곡의 「수원의 노래」 노래비(수원SK아트리움 제공)

수원시립예술단의 발자취

김상용 | 前 수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음악의 도시 수원

우리 국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스포츠는 물론 영화와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관객 천만을 넘은 영화가 심심찮게 나오고 인기선수가 나오는 프로경기는 인산인해다. 음악분야도 외국의 유명한 연주자나 연주단체의 내한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되기 일쑤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199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60, 70년대 경제개발의 여파로 살림살이가 나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은 특별히 음악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홍난파의 고향이 수원(現 화성시 남양면)으로 이후 수원에 1965년 난파합창단이 창단되고 1968년 팔달산에 홍난파 작곡의 「고향의 봄」 노래비를 건립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난파합창단은 당시 음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수원에 일부 청년들과 대학생이 주축이 돼 열악한환경에서도 꾸준한 활동으로 수원이 음악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시민회관에서 열린 난파합창단 15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980.12.18~19(『수원시민회관의 추억을 깨워라』, 수원문화원, 2015)

이후 수많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탄생하면서 1980년대는 10여 개의 합창단이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초에 드디어 자치단체 주도의 수원시립예술단이 첫 선을 보이게 됐다. 1980년대는 제5공화국이 출범하여 사회 전체가 얼음장처럼 경직돼 있던 시기인데, 후에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당시 내무장관이 어쩐 연유에서인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술단을 창단하기로 하고 1차 시행 도시를 발표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7개 내외의 도시에 창단의 기회가 주어졌고 다른 도시에 순차적으로 시행해 간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기업이나 지방정부에서 예술단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과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지역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와 논의 없이도 무엇이든 가능했던 시기였다. 5공 초기 서슬 퍼런 군사정권의 출범으로 사회 곳곳에 상명하복식 군사문화가 자리 잡은 때였고 결정권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

수원시립예술단 창단

당시 수원에는 음악 교사인 송태옥 선생이 지휘하는 소규모의 실내악단이 있었다. 20명 내외의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모체가 되었다. 수원시는 갑작스레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면서 여건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원시민회관에서 열린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1982.6.30, 수원시립교향악단 제공)

1984년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리플렛
(수원시립합창단 제공)

활성화된 단체를 기반으로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때가 1982년 4월이었다. 창단에 맞춰 새로 영입한 단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춘 데다가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기존 실내악단 단원들과 실력 격차가 컸고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해인 1983년에는 시립합창단이 창단됐다. 역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난파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비상임 체제로 출범하였다. 주2회 저녁에 연습시간을 가졌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됐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활동할 수 있었다. 창단 1년쯤 지나 전 단원을 상임으로 조직하면서 성악 전공의 단원들로 합창단을 구성하였다. 결국 교향악단과 합창단 모두 힘들이지 않고 창단할 수 있었으니 이는 수원 음악계의 저변이 그만큼 굳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예술단은 수원시민회관에 둥지를 틀고 이곳에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했다. 팔달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객석 500석 정도의 공연장으로 지금의 대규모 공연장들에 비하면 큰 규모라 할 수 없지만 당시는 수원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었다. 이러한 시민회관은 시나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과 교육장으로 사용됐고, 민간 예술단체들의 발표회장으로, 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학예회가 열려 연중무휴로 운영되다시피 했다. 이 무렵 특이한 현상이 있었으니 합창단이든 초청음악회든 음악회가 끝나면 공연자들과 관객 모두가 일어나서 홍난파의 「고향의 봄」을 합창하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광경은 당시 의례적인 일이었다.

수원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 공연 모습(2007.12.31, 수원시청 제공)

초창기 수원시립예술단의 활동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든다. 규모도 규모지만 공연 내용 또한 지금에 비하면 초보적 수준이었다. 오랜 시간 노력해온 단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준 많은 수원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야외음악당시대

1996년 5월, 인계동에 수원 최초의 야외음악당이 문을 열었다. 널따란 잔디밭에 탁 트인 시원함, 경기도문화의전당과 마주보고 있어서 문화의 거리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시립예술단도 함께 야외음악당 건물에 자리 잡았다. 창단 후 10여 년은 갖은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내실을 다져왔지만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도 그럴 것이 실내공연장이란 게 고작해야 천여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이다.

그러나 야외음악당이 생기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야외공연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오후 3시경에 하는 리허설에도 푸른 잔디밭과 시원한 바람 덕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다. 당시만 해도 시립예술단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기에 야외음악당에서의 활동은 예술단의 지평을 넓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지금 두 단체는 연간 50회 내외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공연도 다녀오곤 한다. 연주 횟수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들이 취입한 음악이 KBS, FM전파를 타고 흐르기도 한다. 창단 30여 년이 지난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수원시의 문화사절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다.

2014년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수원시립합창단 149회 정기연주회(수원시립합창단 제공)

음악제로 본 수원의 서양음악

류설아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

수원의 서구음악제 활성화를 이끈 주인공은?!

수원시에서 서양음악이 씨앗을 뿌리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결실을 맺기까지. 그 긴 과정의 시작점은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라는 '사건'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구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쓴 수원문화원과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한국음악 1기를 1953~1980년으로 본다. 수원에서는 1957년 10월 수원문화원이 문을 열고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가 발족하는 등 지역 내 서구음악 전공자 및 애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현재 수원문화원이 수원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민회관 역시 현대의 한국음악 1기인 1962년에 문을 열었다. 수원문화원 초기 사업 중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해 매년 음악 감상회를 20여 회 이상 열었는데, 서구음악이 대중화되지 않은 당시 분위기를 방증한다.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는 1964년 8월 창립됐다. 경기도 음악예술의 주무대가 수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수원음악협회는 1966년 1월 정식 인준을 받았다. 수원음악협회는 특히 난파 홍영후와 관계된 많은 음악 활동을 전개하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음악단체로서의 사명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1967년 경기도청 이전이다.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청 이전으로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다.

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도 특히 음악이야말로 혼자 할 수 없다. 독창자가 빛나기 위해 연주단의 선율이 뒷받침돼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인간의 목소리를 증명하는 데 수 십 명의 하모니만큼 제격인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이 시기에, 수원에서 많은 합창단과 연주단이 창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음악 활동이 가속화되기 시작됐고, 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1년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인 경기도

문화의전당이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개관했다. 지난 2014년 공연장 SK아트리움이 문을 열기까지 크고 작은 공연장이 마련됐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 거점을 활용한 음악인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음악제의 대표주자 〈난파음악제〉

수원에서는 수원음악협회와 수원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한 서구음악제가 끊임없이 이뤄졌다. 특히 한국근대음악의 상징인 난파 홍영후 선생이 태어난 도시인만큼 유독 그를 기리는 음악제가 풍성했다.

대표적인 난파음악제는 서구음악의 선구자인 난파 홍영후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1969년 8월 30일 난파추모일에 맞춰 시작됐다. 경연과 음악회, 난파음악상 시상 등으로 구성해 전국 규모의 음악제로 성장했다. 1968년 제1회 수상자인 정경화를 비롯해 세계적인 음악가인 백건우, 정명훈, 조수미, 장영주, 장한나 등이 모두 난파음악상 수상자다. 세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음악가를 발굴한 난파음악인상과 난파음악제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나 '잘 나가던' 난파음악제에 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음악제 개최를 하기 위해 이름을 〈기전음악제〉로 바꾸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여기서 '기전'은 조선시대 경기

1975년 난파음악제 고등부 합창 모습(『수원시민회관의 추억을 깨워라』, p.66~67)

지방의 명칭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사를 발표, 해당 명단에 이름이 오른 난파 홍영후에 대해 끊임없이 친일 논란이 빚어지면서 2004년에는 명칭을 바꾸고서야 음악제가 열렸다. 2011년 8년 만에 이름을 되찾고 다시 〈제43회 난파음악제〉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졌다. 그럼에도 2013년 난파음악상 제정 이후 사상 최초로 작곡가 류재준과 소프라노 임선혜 등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수원에서 '난파'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오롯이 시민의 몫인 것이 분명하다. 문득 2013년 난파음악상 수상 거부 사태로 인터뷰했던 오현규 경기도음악협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홍난파는 한국에 서구음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선구자이자 민족의 정서를 음악으로 대변한 음악가다. 음악적 업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치적 잣대로 난도질하지 못할 것이다."

서구 음악 저변 확대로 음악제 대거 출현

서구 음악의 저변이 확대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민간 합창단과 연주단체의 양적, 질적 팽창이다. 전공자든 아마추어든 서구 음악을 보여주거나 직접 즐기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에서는 특히 1964년 수원음악협회 창립 이후 많은 합창단이 창단했다. 1965년 9월 창단한 〈난파남성중창단〉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1966년 9월 혼성으로 재편성, 지금까지 수원음악계를 대표하는 음악단체로 성장한 〈난파합창단〉의 전신이다. 난파합창단은 이후 〈난파어린이합창단〉과 〈난파어머니합창단〉의 창단도 이끌었다. 이즈음

2008년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21회 여름음악축제〉 공연 모습

제12회 전국관악제가 수원실내체육관과 수원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이후 관악 부문에 대한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수원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수원 지역의 음악계는 더 많은 합창단과 연주단체가 구성, 활약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난판소년소녀합창단〉, 〈수원여성합창단〉, 〈대한여성합창단〉, 〈수원시어머니합창단〉, 〈수원기독 남성합창단〉 등이 창단했다. 연주단체인 〈수원사계앙상블〉도 이 시기에 출발했다.

이처럼 서구 음악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무대(음악제)도 대거 마련됐다.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가 1993년 〈수원여름음악축제〉로 이름을 바꿔 2010년까지 수원시민들과 함께 했다. 그밖에도 수원이 배출한 음악 인재와 수원을 빛낸 음악인을 초청해 마련하는 무대인 〈향토 음악제〉, 지난 2001년부터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해 이뤄지는 〈수원합창제〉, 경기 출신 음악인을 중심으로 공연자를 구성한 〈경기합창제〉, 수원 YWCA 주최로 1996년부터 열린 〈초록 동요제〉 등이 있다. 또한 1997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수원국제음악제〉가 2002년까지 이어져 오다 2014년 〈수원화성국제음악제〉로 새롭게 시작돼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수원시민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좀 더 사랑받는 수원의 서구 음악제를 응원하며 수원음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예정된 음악제를 소개한다. 일단 오는 4월 2일 수원시립교향악단 주관으로 수원SK아트리움에서 〈수원음악인의 밤〉, 같은 달 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봄의 길목에서〉, 6월 23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오디션에 통과한 〈청소년음악회〉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에 수원예술인축제를 통한 음악인들의 무대가 열리며 수원전국학생음악콩쿠르(9월 중), 신인음악회(11월 중), 수원합창제(11월3일)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난파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경기일보 제공)

수원의 서양음악을 이끌어온 사람들

한윤희 | 협성대학교 외래교수

수원에 양악의 물림이 퍼지기 시작하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서양음악이 19세기말 기독교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것처럼 수원의 서양음악 역시 찬송가에서 시작돼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불씨를 심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찬양의 목적을 넘어 '애국가', '독립군가', '항일투쟁가', '창가' 등으로 발전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 출신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홍난파를 낳았으며 이후로 많은 수원의 연주자가 배출됐다.

대표적인 수원의 연주자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의 홍난파와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동요 「섬집아기」를 작곡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흥렬(1909~1980)을 찾아볼 수 있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발발 후 수원에 정착한 이흥렬은 수원 피난민촌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미군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등 제2의 고향인 수원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돼 주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가」를 작곡했으며 1953년에는 「수원의 노래」를 작곡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찾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해방과 한국전쟁 후 서양음악은 우리나라에 주류 음악으로 대중성을 갖기 시작했다. 수원에서 전문 서양음악의 활동은 1956년 수원문화원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됐으며 1964년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 창립 이후 음악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연주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1964년 제1바이올린에 이석기, 제2바이올린 이명재, 비올라 조영환, 첼로 송태욱 등이 〈현악4중주단〉을 만들어 활발한 연주 활동과 음악 교육을 병행하여 수원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수원음악협회의 원로 고문인 송태욱은 1982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해 초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면서 수원 음악계의 대부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 합창음악을 이끌어온 수원

수원 서양음악의 맥은 합창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원의 합창음악은 우리나라 최고다. 아니 세계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수원에는 많은 민간

합창단이 융성하고 있으며 성악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다. 최고로 손꼽히는 수원의 합창은 한국합창계에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이상길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탄생됐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음악 해석을 연구해 합창에 적용했으며, 폭넓은 레퍼토리와 다양한 음색 그리고 정교한 사운드와 풍부한 화성감 등으로 관객을 매료시켰고 지휘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서울에서 출생한 후 9개월 만에 한국전쟁을 겪고 이후 수원에서 성장한 그는 1983년에 수원시립합창단을 창단했고, 초대 상임지휘자로 18년간 지휘를 맡아서 수원시립합창단을 세계 유명 합창단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게 하였다. 현재는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대학에서도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 및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세계합창연맹(IFCM)이사 등으로 한국 합창음악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면서 명실공히 국내 합창음악 발전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수원 음악계의 우먼파워(women power)

1997년 수원지역 최초로 전문 오페라단인 〈경기오페라단〉이 전애리 단장에 의해 창단되면서 오페라의 불모지였던 수원에 활력소가 됐다. 1999년에는 수원 출신의 전문

2014년 세계합창 심포지엄 및 합창축제 폐막식 연주회 모습(지휘 이상길)

수원 오페라단 공연 모습

여성 성악가들이 모여 결성한 수원 최초의 여성중창단 〈노래하는 여자들〉을 창단하여 지역 성악계 발전에 기여했다. 성악가이자 대학에서 많은 인재 양성에 기여한 전애리 단장은 수원음악협회 지부장,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수원 음악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연주활동 또한 활발하게 하면서 수원 음악계에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오페라를 전공한 성악가들이 수원지역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수원 출신 성악가 남지은 단장을 위시로 하여 〈수원오페라단〉을 창단했다. 오페라 전공자들이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어 떠나는 추세라 지역에서 만이라도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 창작오페라 이건용의 「봄봄」을 판소리와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극의 희극적 요소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 엄마 역에 성악가가 아닌 연극인을 캐스팅해서 해학오페라로 청중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1970, 80년대 수원 피아노계의 대모로 피아니스트이며 현재 수원음악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향지와 제자들이 지역사회의 피아노 음악 발전을 위해 1997년 〈송피아노앙상블〉을 창단해 현재까지 전문적 예술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매회 공연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피아노 문헌 연구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맨파워(men power)가 우세한 지휘계

수원교향악단을 모체로 한 수원시립교향악단이 1982년에 창단된 후 1997년에는

국내 최초의 도립관현악단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신인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창단되면서 수원에 오케스트라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순수 전문 민간 오케스트라 단체가 생기면서 전문 지휘자와 연주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 수원심포니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최용신, 수원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신동렬, 경기심포니커의 김창석, 수원오페라단의 양승열 모두가 수원 출신으로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심포니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겸 음악감독인 최용신은 국외 유명 연주단체 및 연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원을 널리 알렸으며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직접 초청해 수원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또한 연주회마다 수원 출신 작곡가의 창작곡을 함께 연주해 수원의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원음악계의 미래를 기대하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관심이 예술분야로 집중되고 예술 교육의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수원 역시 인적 자원이 증가했고 연주회가 활성화되면서 연주분야에 큰 맥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현재 수원음악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수는 130여 명이며 회원단체 소속의 총인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 어림잡아 거의 천여 명에 이른다.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면에서도 뒤지지 않아 한국의 음악계를 빛내고 있는 수원의 뮤지션들이 지금도 국내외에서 상당수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자 또한 수원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 음악계의 미래를 기대한다.

2011년 수원심포니오케스트라: 한-오 현대음악교류를 위한 피아노 트리오 'Trio Stradivarius' 초청연주회(지휘 최용신)

개혁 농법을 만든 최초의 저수지 만석거(萬石渠)

김준혁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농업의 도시 수원

효원의 도시 수원 외에 수원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농업의 도시 수원이다. 지금은 비록 서울 농과대학이 서울 관악 캠퍼스로 옮겨지고, 농촌진흥청이 전북 익산으로 이사갔지만 아직도 그 흔적들은 그대로 수원에 남아 있다.

이처럼 수원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름 아닌 수원의 장안구에 위치한 만석공원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만석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는 곳이지만 이곳은 단순히 현대의 공원이 아닌 정조시대 농업 개혁의 산실이었다.

일제강점기 연잎이 가득한 만석거의 모습(수원박물관 제공)

만석공원의 원래 이름은 만석거였다. 만석(萬石)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저수지란 것이다. 사실 이 코너는 수원만 존재하는 유산혹은 수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특별한 역사를 소개하는 코너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존재하는 저수지를 소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석거는 충분히 소개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최초로 저수된 물을 아래로 공급할 수 있는 갑문(閘門)을 설치한 역사적인 저수지이기 때문이다.

정조는 매년 1월 1일이면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라는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를 권농윤음(勸農綸音)이라고 하는데, 정조의 농업에 대한 철학과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조의 농업관은 즉위 직후 전국에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 중에 반드시 물을 위아래로 공급할 수 있는 수통(水桶)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조 재위 기간 내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795년 비로서 수원에서 만석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최초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한 너무도 중요한 저수지인 것이다.

황전폐답을 옥토로 바꾼 만석거

그렇다면 이 만석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조는 수원신도시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수원에 장용영 외영이라는 조선 최고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 군영의 운영자금과 화성유수부 경영 자금 그리고 수원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만들고자 하였다. 대규모 국영 농장을 만들어 토지 없는 백성들이 와서 농사짓게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개혁 방안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의 토양이었다. 사실 팔달산 일대의 수원지역은 상당히 토양이 안 좋았던 지역이었다. 『화성성역의궤』에도 이 땅이 척박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연히 토양이 좋지 않아 농사짓기에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화성 성역을 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조는 땅만 개척한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 논을 사기도 했다. 당시 조정에서 2만냥의 막대한 돈을 투여하여 논을 구입하였는데 이 돈이 바로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하고 남은 돈이었다. 1789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읍치 일대로 옮기고 그 주변의 가옥을 현재의 팔달산 일대로 옮기는 데 들어간 보상비가 3칸짜리 집이 약 10냥,

5칸 17냥, 7칸이 21냥 정도였으니 2만냥은 무척이나 큰 금액이었다. 이중 12,660냥으로 논 109섬 14마지기를 사고, 남은 돈 5,700냥으로 만석거를 만들었다.

둘레 1,022보 규모의 만석거는 1795년 5월 18일 완공되었다. 100여 석락(石落) 규모의 둔전에서는 바로 농사를 지어 그해 전국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었음에도 이곳은 만석거에서 안정되게 물을 공급하여 대풍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대유둔에서는 수차(水車)를 사용하였다. 수차의 사용으로 높고 낮은 곳에 모두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 수차는 장용영에서 다수 제작하여 보관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정조의 병농일치에 대한 의지가 장용영 창설에 담겨 있기에 대유둔의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수차 제작을 장용영 외영에서 제작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가뭄에도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는 만석거에 정조는 매우 만족해하며 이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정사(政事)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전국의 백성들이 너도나도 만석거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고 조정에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30 만석거 전경(조형기 제공)

대유둔의 경영

이렇게 만들어진 넓은 땅을 대유평 혹은 대유둔이라 불렀다. '대유(大有)'는 태양이 중천에서 밝게 빛나 그 광명이 온 누리의 만물에 비친다는 의미이다. 덕이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빛을 뿌리고 있는 상으로 하나의 음효가 제왕의 자리에 위치한다. 더불어 열매를 맺는 길상으로 어려움을 끊어내고 밝음을 천하에 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유'는 크게 만족하여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유둔 전체가 국가 소유 논으로 토지가 없는 아전, 관의 노비, 성안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땅만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종자를 나누어 주고 소를 주어 농사를 돕게 하였는데 당시 수확의 50%를 개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50%를 화성유수부에 세금으로 내었다. 그 세금으로 화성에 주둔했던 장용영 외영의 군사들의 월급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원래 '황전폐답(荒田廢畓)'이었던 대유둔 지역을 옥토로 바꾸어 놓아 이곳은 계속되는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높은 농업생산성을 실현하였다. 결국 만석거의 설치와 대유둔 경영은 화성유수부와 장용영 외영의 재정적 근거지이자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근거가 되었다.

수원의 팔색길, 제5색 도란길

김영호 | 한국병학연구소장

도란길은 수원의 팔색길 중에서 제5색에 속하는 길이다.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체육공원을 잇는 산길과 원천천의 시냇길과 영통 도심에 조성된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연결한 것으로 약 11㎞에 달하는 둘레길이다. 벗과 함께 걸었다면 더욱 좋았을 도란길을 사흘 동안 홀로 걸었다.

어느 길이 더 좋을까?

2015년 1월 하순, 영통중앙공원을 품고 있는 독침산을 찾았다. 독지미산으로도 불리는 이 산은 해발 109m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지만 그물처럼 샛길이 연결되어 있기에 걷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 휴일 오후라 그런지 나처럼 홀로 걷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두세 사람이 어울려 걷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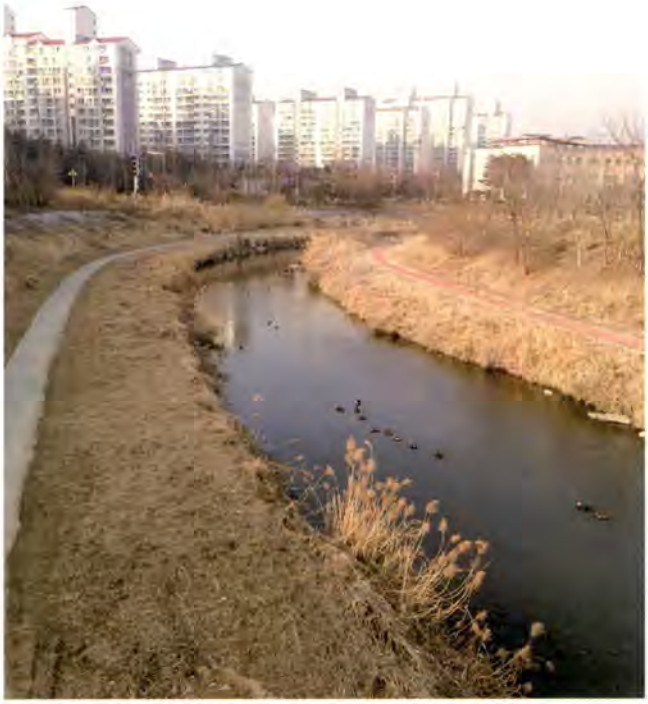
영통중앙공원 독침산 정상의 영통정 올라가는 길

산 정상에 서 있는 팔각정에 올랐다. 현판에 산 정상에 서 있는 팔각정에 올랐다. 현판에 "영통 신시가지 대역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옛 마을 이름을 따서 '영통정'을 지었다는 사연을 기록해 놓았다. 두 시간 남짓 도란길과 주변으로 뻗어나간 갈림길까지 걸어보았다. 비탈길마다 튼튼한 계단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다 계단 옆에 사람들이 새로 낸 길로 걸었다. 무릎이 건강한 젊은이들도 부드러운 흙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계단 대신 멍석을 깔은 곳도 있었는데 이것은 썩 잘한 일로 보인다. 여럿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먼내에서 물까마귀를 만나다

열흘쯤 지난 2월 2일 다시 도란길을 찾았다. 권선지하도 위에 설치된 원형의 육교를 지나 천변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세워진 오색 도란길 안내판에는 지명과 관련된 정보가 빼곡하다. 원천이라는 멋없는 이름보다 '먼내'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불렸던 이 물길은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황교동에서 황구지천과 합쳐져 안성천을 지나 아산만까지 흘러가 마침내 서해에 몸을 섞는다.

물길이 내려오는 옛 원천유원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날이 포근해서인지 평일인데도 오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시냇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맑았고 수량도 풍부했다. 청둥오리들이 무리지어 먹이를 찾거나 모래밭에서 주둥이를 날갯죽지에 박고 쉬는 모습은 수원천과 비슷했다. 물병아리들도 몇 마리 보였다.


도란길이 지나는 원천리천에는 많은 새들이 노닌다

짙은 갈색의 작은 새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창 먹이 사냥 중인데 잠수하는 솜씨가여간 아니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멀찍이 서서 한참을 지켜보았다. 무슨 새일까? 날개를 퍼덕이며 재빠르게 수면 위를 달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새가 물까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스라한 기억 속의 새를 수십 년 만에 이곳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나의 발길을 멈추게 한 녀석이 또 있었다. 파랑새처럼 빛깔이 화려한데 갈대에 앉았다가 물속에 툭 떨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특이한 행동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겨울의 한복판인데 실가를 늘어뜨린 버드나무에서 벌써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다. 봄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 원천리천 주변에 지혜샘도서관과 쉴만한 공원이 여럿 있어 공부하다가 산책하기에 좋다. 다만 가로수가 없어 겨울이 지나면 햇볕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게 흠이다.

행복산아 안녕!

광교호수공원까지 쭉 걸어가고 싶었지만 영흥체육공원으로 가기 위해 원천교 삼거리에서 방향을 틀었다. 천변을 벗어나 원천교로 올라서자 세상은 딴 판이다. 달리는 차 때문일까? 순간 방향이 헷갈렸다. 이정표도 보이지 않는다. 유모차를 끌고가는 세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영흥공원이 어느 방향이에요?"라고 묻자 모두 고개를 갸웃댄다. 무려 다섯 사람에게 거듭 물었지만 단 한 명도 아는 이가 없었다.

겨우 영흥체육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해가 뉘엿했다. 산등성이에 올라 바라보는 황혼에 물든 도시의 저녁풍경은 평화로웠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홀로 산길을 걷는 느낌도 특별했다. 아까시나무에 코팅된 몇 개의 종이가 달려 있는 게 보였다. 2년 전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서툰 글씨로 이렇게 써 놓았다.

"행복놀이터에서 잘 놀았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자주 못 와. 안녕."

"행복산아, 그동안 잘 지내. 고마워."

아이들에게 이 산의 이름을 행복산이라 가르쳐준 사람은 부모일까,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일까?

멀리 보며 길을 만들자

2월 3일 입춘이다. 메타세콰이어길을 걷기 위해 다시 나섰다. 평소와 비슷한 오후 시간에 권선지하차도에서 망포역 방향의 덕영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차들이 질주하는 대로변을 걸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봄이 오기 전에 한시 스무 편을 외우리라 작정하고 보름 전부터 봄과 매화를 노래한 작품을 찾아 외우기 시작했다. 여태 외운 한시 대여섯 편을 소리 내서 암송하며 걷다보니 어느덧 망포역이다. 역을 조금 지나 영동중학교와 태장고등학교 양쪽으로 곧게 줄지어 서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운치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길은 내가 경희대 강의를 나가며 3년이나 버스로 통학했던 길이다. 그때는 무심히 보았는데 인도도 잘 정돈되어 걷기에 편했다. 영흥체육공원에 있는 도란길쉼터를 지나 산등성이에 올랐을 때는 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도란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도란길을 걸으며 못내 아쉬웠던 것이 이정표였다. 이정표는 도란길이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 보행자가 궁금해 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무엇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원천교에서 영흥체육공원을 잇는 길을 자연스레 연결하는 일은 서둘러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30년, 100년 뒤를 내다보며 길을 다듬어 가면 좋겠다.

협궤열차 수인선(水仁線), 낭만을 추억하다

송시연 |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수인선, 추억을 만나다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7년 개통해 1995년 운행을 종료할 때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원, 화성, 시흥, 안산, 인천 등 네 지역을 횡단하며 시민들의 발이 됐다. 열차는 서로 마주보고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폭이 좁았고, 안산 원곡고개를 넘을 때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크기가 작았다.

단돈 200원에 시장에 젓갈을 팔러가는 아낙부터 소금상인, 등교하는 학생들을 실어 나르며 그던 수인선. 그 시대 시민들의 삶과 추억, 낭만을 싣고 달렸던 그 협궤열차는 수원 인천 간 국도가 생기고 버스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2013년 6월 18일 수원문화원에서 지역문화예술교류의 일환으로 수인선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프로그램은 문화원을 비롯해 수원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원이 함께 참여해 철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소래보구를 지나는 수인선의 모습

근대문화유산의 흔적을 되짚고,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기획됐다. 필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과거 수인선이 다니던 선로부지 위인 세류중학교 뒤편에 조성된 〈수인선 세류공원〉을 시작으로 수인선의 노선을 따라 답사를 다녔다.

장인상 前 수인선 기관사

이날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셨다. 바로 수인선을 운행했던 기관사 장인상(73)씨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수인선을 운행한 그는 그때 그 시절의 수인선에 대한 여러 일화를 들려주며 답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그런 그를 지난 5일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난 그는, 그날의 모습 그대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장인상 前 수인선 기관사의 집에서 그가 가장 먼저 꺼내온 것은 수인선 기관사로 근무했을 당시 입었던 유니폼이었다. 1998년 35년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지만 여전히 곱게 다려 옷장 한편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다. "다시 꺼내보니 기억이 새롭네요. 수인선을 운행할 때도 이 옷을 입었죠. 아직도 이 옷을 보면 그때 추억들이 떠올라요."

그는 1963년도 철도청에 기관조사로 입사해 기관사의 보조로 일하며 열차에 석탄 때는 일을 했다. 그 뒤 68년 기관사를 달던 날, 그가 처음 운행한 열차가 바로 수인선 협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수인선

열차였다. "수인선은 제가 처음 운행한 열차예요. 명예퇴직 할 때까지 1남3녀를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준 고마운 열차죠."

수인선, 역사 속으로 스며들다

수인선은 58년 동안 수원과 인천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농수산물을 물론 인근 지역의 시민들과 통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수인선은 수원에서 인천까지 네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었어요. 통학생, 좌판아주머니, 회사원 등 우리 서민들의 발이 되어준 소중한 열차였죠."

협궤열차는 국제 표준궤(1,435㎜)인 일반열차에 비해 레일의 간격이 절반 정도인 762㎜로 좁다. 그래서 '꼬마열차'라고도 불렸다. "의자에 앉으면 앞사람과 무릎이 닿을 정도로 좁았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지하철이든 버스든 조금만 스쳐도 짜증을 내잖아요. 수인선 안에서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냈죠. 참 인간미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열차였어요."

시간은 흘렀고, 수인선도 세월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허허벌판이었던 철길 주변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교통이 점점 편리해지고, 수인선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게 됐죠." 1977년 국도 42호선의 확·포장 공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수인선은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결국 1995년 12월 31일

평동에 남아있는 수인선 철로의 현재 모습(수원문화원)

폐선됐다. "수인선이 폐선됐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섭섭했을 거예요. 저도 제 삶의 터전이었고 제 삶을 이어주는 열차였던 만큼 애잔한 마음이 들었죠."

수인선, 추억을 만나다

열차 운행이 종료된 이후 수원시는 과거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니던 선로 부지 위인 세류중학교 뒤편에 〈수인선 세류공원〉을 조성하고, 당시 수인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기차모형을 전시해 수인선의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에 살면서 세류공원에는 자주 가보질 못했어요. 그날 수인선 답사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가본 게 전부죠. 그날도 그렇지만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네요. 지금은 모형이 돼버린 협궤열차를 보면 감회가 새롭죠."

또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1월 수인선 세류공원에 수인선을 소재로 한 작품 2점을 설치했다. 이 작품은 이용주 작가가 참여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수인선을 떠올리며 과거의 추억과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 수인선 객차의 외형과 내부 모습을 복원하고, 객차 모습의 일부가 녹아 흩어지는 모습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수인선과 흩어져 있는 과거의 기억이 모여 새롭게 구성되는 수인선을 상징한다.

"수인선을 여전히 기억하고 추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수인선이 단순히 노장들이 추억하는 과거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소중한 낭만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수인선 세류공원에 전시돼 있는 「흩어지다」(이용주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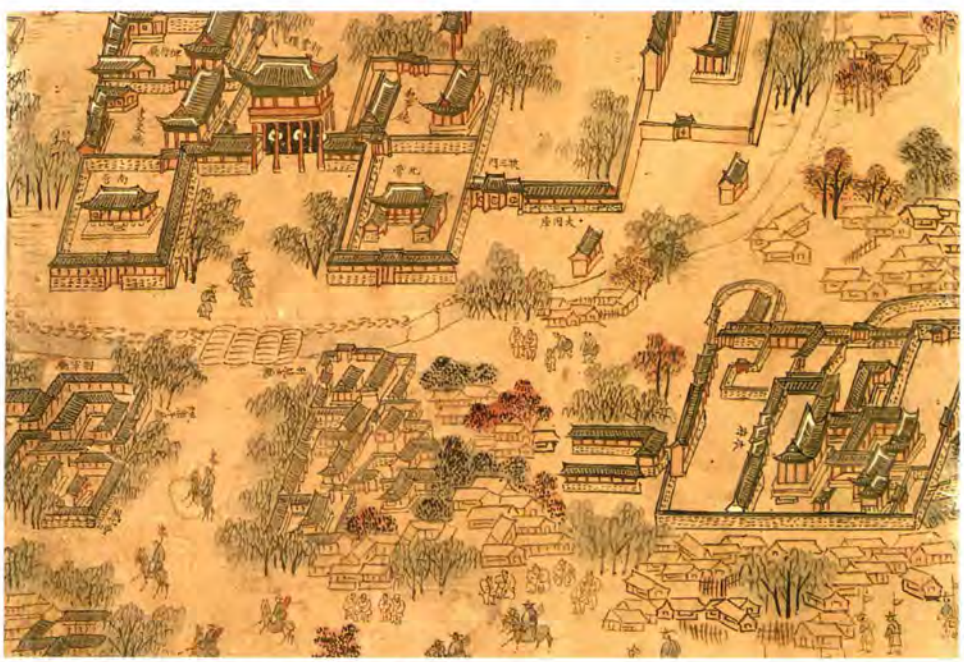
수원에서 불린 수원의 노래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예능의 도시 수원

한 도시의 상징은 이미지로 연출되고 다양한 계기로 풍성해진다. 그 풍성함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노래도 포함된다. 수원은 정조 이래 장용영과 이후 총리영에 소속된 군악대(軍樂隊)를 일컫는 '세악수(細樂手)'가 있었다. 타악기와 나각과 나발을 부는 취고수(吹鼓手)와는 달리 피리·젓대·해금·장구·북을 포함한 삼현육각(三絃六角)으로 편성된 세악수는 최소 6명에서 25명까지 구성되었다.

장용영의 경우 가장 규모가 컸던 세악수를 운영하였으니, 이들이 전문적인 음악인들이었다. 이에 세악수들이 머물던 세악수청(細樂手廳)이 별도로 있었는데, 풍화당(風化堂)과 함께 신풍루 앞 십자대로 쪽에 있었다. 금천교 아래 신풍루를 바라보며 왼편에 별군청(別軍廳)과 세악수청과 함께 풍화당이 위치하고, 길 건너 맞은편에는 별효사청(別驍士廳)이 넓게 자리하였다.



세악수청과 풍화당([화성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행궁 앞 풍화당이 화령전 옆으로 이건된 것은 정조 어진이 1908년 9월 19일 서울로 이안된 이후의 일이다. 풍화당은 기로소(耆老所)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지역의 명망있는 원로들이 모임을 갖는 곳으로 활용되었다. 풍화당은 1950년대 중반 수원의 부자 양성관의 큰 아들 양규룡(梁奎鳳, 1897~1961)을 중심으로 정악원(正樂院)을 결성하여 그 음악적 전통을 이어갔다. 한편 전문 직업인으로 예능 수원을 이끌었던 세악수들을 비롯한 전통 예능인들은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면서 설 자리가 사라지고 그 빈 자리를 서양음악이 차지하게 되었다.

원래 우리민족은 소리하고 풍물치는 것이 일상적 삶이었다. 들로 일을 나갈 때 풍물을 앞세우고 나가고 노래를 불렀다. 여럿이 함께하는 들노래가 대표적이다. 들노래를 비롯한 노동요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불렸던 민족의 노래는 〈아리랑〉이다. 지역마다 다양한 노랫말과 가락으로 당대의 인심을 담은 노래가 아리랑이다. 수원에서도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불렸겠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1920년대 채록된 「수원 북수리 아리랑」(『조선지광』 1929년 6월호)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살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타령이 왜 생겼나/ 슬픈 놈 가슴이 미여진다

밭가는 농부네 아리랑은/ 도조와 장리가 걱정일세
일년 열두달 지여논 것은/ 누구의 곳집을 채워주나

제사장 여직공 아리랑은/ 시집갈 밑천이 걱정일세
기계는 돌아서 돈을 낳고/ 돈은 돌아서 어디로 가나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궁핍과 현실을 핍진하게 담고 있는 가사가 눈길을 끈다. 아리랑이 민속적 노래이기 보다 역사적 노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수원지역에서 고리대금업의 성행과 광범한 소작농의 애달픈 삶은 어린 딸자식을 공장에 내몰 수밖에 없는 가난을 담고 있다. 이보다 후대에 채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수원아리랑타령」이 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역의 아리랑이 전해오는 것은 「여주아리랑」, 「양평아리랑」과 「수원아리랑」 정도이다.

그만큼 수원은 예능의 고장이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무향(武鄕)으로 무과급제자들이 넘치던 상업의 도시이자 예능의 도시였다. 끼가 넘치는 수원 한량들의 사설과 시조창은 활쏘기 등의 행사를 통해 수원 기생들의 다양한 노래와 어울렸다. 대한제국기 「수원팔경가(水原八景歌)」 같은 4·4조 가사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가사와 시조를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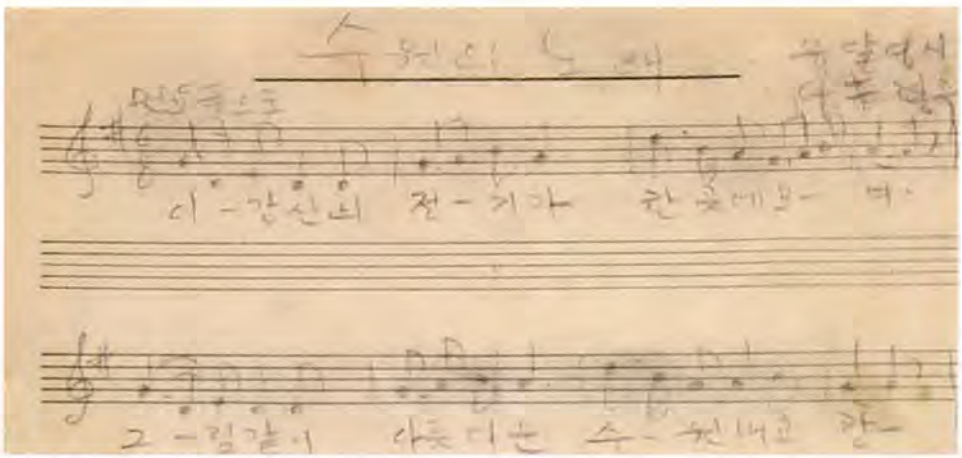
하여 잡가와 민요는 수원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수원의 노래와 이흥렬

2014년 3월 6일 새로 개관한 SK아트리움 대공연장 로비에서 '「수원의 노래」 노래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의 노래」 작곡가 이흥렬(李興烈, 1909~1980)의 아들 이영조 교수가 참석한 이날의 제막식은 또 다른 역사를 담게 되었다. 수원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이영조 교수와 접촉하여 얻은 이흥렬 선생이 쓴 「수원의 노래〉 악보(1953)를 동판으로 뜬 것으로 악보 원본은 수원박물관에 기증되어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

수원시 행사와 수원시민들이 부르게 된 공식적인 「수원의 노래」는 1953년 전쟁이 끝난 참혹한 현실에서 만들어졌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래는 그 지역의 상징적 의미와 집단적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수원시에서 일찌감치 이를 간파하고 「수원의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곡가 이흥렬은 1951년 1.4후퇴 때 수원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오산 미공군기지 성가대 지휘를 맡아 미 공군과 함께 이동한 것이다. 이에 1951년 12월부터 수원 고등동에 정착하여 1953년 9월까지 살았다. 수원에 살고 있을 때 「수원의 노래」를 작곡한 것인데, 「수원의 노래」 노랫말은 수원농대 교수였던 유달영(柳達永, 1911~ 2004)이 지었다. 여타의 다른 시·도의 노래들이 대부분 4/4박자나 2/4박자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6/8박자로 굿거리장단의 흥겨움이 묻어나는 노래다.



수원의 노래 원본(1953)

이러한 작곡의 의도는 원본에서 확인되는 바, 노래 부르는 방식을 '민요풍으로'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이후 원곡을 송태옥이 편곡하고 난 뒤 '민요풍으로'에서 '씩씩하게 민요조로' 바뀌었지만 역시 전통 민요가락을 담은 탁월한 작곡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원본에는 가사 1절 가운데 '아름다운 수원 내 고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불리는 것은 '아름다운 정든 내 고향'으로 정리되어 있다.

1953년 「수원의 노래」 이후 이흥렬은 평택과 안성을 비롯하여 광주·익산군·대덕군·보성군·영양군, 서울의 노래, 마포군민의 노래, 북아현3동의 노래 등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노래 만들기를 이끌었다. 「수원의 노래」의 선구적 업적과 역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봄이 오면」·「바우고개」·「자장가」 등 깨끗하고 담백한 가곡을 많이 작곡하여 '한국의 슈베르트'라 일컬어졌던 인물이다.

이흥렬의 또 다른 업적 가운데 하나는 130개가 넘는 학교 교가를 작곡하였다는 점이다. 해방 뒤 가장 많은 노래를 작곡하게 된 것은 일본어로 된 교가를 바꿔 한글의 새로운 교가를 만들게 된 것인데, 작곡가로 이름난 이흥렬에게 의뢰한 것이 많았던 때문이다.

수원의 경우에도 삼일중학교 교가(김병호 작사, 1947년)를 비롯하여 매산국민학교 교가, 신풍학교 행진곡, 수원여자고등학교 교가(유달영 작사), 수원농림고 교가(유달영 작사) 등 5개에 달하고 있다. 수원을 대표하는 학교들의 교가라 하겠다. 그렇게 작곡가 이흥렬은 강렬하게 각인되었고, 수원에서 그 이름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레코드 콘서트에서 이흥렬(수원, 1950년대)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라

이형복 |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대리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한다. 때론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때론 잊고 싶은 추억으로 말이다. 특히 현대는 평생교육이란 말에서 보듯, 배움은 끝이 없다. 그 예측할 수 없는 배움의 중심에는 스승이 있다. 크든 작든 배움을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는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번 호부터 여러 분야의 스승과 제자의 알토란 같은 이야기를 찾아보고자 한다.

스승과 제자의 첫 만남

수원은 미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대표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수원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도 전업화가와 미술에 꿈을 품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화폭에 창작열을 쉼 없이 발휘하고 있다.

박태균 원장(좌)과 권용택 화백(우)

미술학원 스승과 제자로 만난 권용택(63) 화백과 박태균(49) 호우와자명 미술학원 원장. 권 선생은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를 거쳐 미술학원장과 예술단체장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친 수원의 대표적인 예술인이다. 그는 단순히 작품활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교육자이자 문화행정가, 기획자로 영역을 넓혔다. 박 원장도 권 화백의 영향을 받아 미술학원 운영과 함께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미술공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진작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들의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화백이 유신고 미술교사 등 8년의 교직 생활을 마친 후 수원 최초의 미술입시학원인 〈자명미술학원〉을 설립했다. 이 때 미대 지망생인 박 원장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술학원의 문을 두드리면서다.

권 화백은 "처음 미술학원은 수원 종로 사거리 인근의 수원(壽園)만두 옆 건물에 차렸어요. 이후 지금의 행궁동 한민교회 건물로 옮겼죠. 이 때 태균이가 학원생 시절을 마치고 대학을 다니면서 미술학원 강사로도 활동했어요."라고 말했다.

그 당시 박 원장의 미술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권 화백은 "박 원장이 수성고 재학시절이었는데, 이미 충분히 미술 수업을 한 상태라 저는 젓가락 하나 더 얹은 것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현대 수원 미술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권 화백이 말하는 수원미술계의 족보(?)에서 이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초창기 수원미술협회를 이끌었던 김학두 선생과 권용택 화백 연배를 1세대로 본다면, 이 시기는 순수 창작의 시대로 볼 수 있다. 이어 2세대는 경기구상작가와 컴아트 모임의 이석기, 이경근, 김석환 등으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거친 작가군이 포진할 때다. 또한 3세대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확산시킨 박태균 원장 연배의 작가들이다. 4세대는 30대 미만의 청년작가로 이들의 자유분방하고 창의력 넘치는 실험정신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작품을 구가하고 있다는 평이다.

세대를 넘나들며 교류했던 권 화백과 박 원장의 공통점은 그림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강원도 평창으로 거주지를 옮긴 권 화백은 지난겨울 평창송어축제 홍보국장을 맡았다. 여기다 텃세(?)를 무릅쓰고 이장직까지 수행하고 있다.

미술을 화두로 한 평생을 살았지만,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쉴 새가 없다. 그래서일까. 박 원장은 바쁘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수원 남문 로데오시장에 윈도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만만치 않은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추진하는 뚝심은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일까. 박 원장은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권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자명미술학원을 다니던 시절 늘 학생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학생들과 같이 그리고, 수원미술협회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폭넓은 기획 활동을 펼치시기도 하셨죠."라고 말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 제자는 스승을 위해

1980년대 초반 수원지역의 고등학교 미술반은 연합전을 열었다. 권 화백의 주도 하에 그림 그리는 학생들의 친목과 작품발표회를 겸한 행사였다. 이는 수원지역미술학우회로 발전했다. 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 명맥은 '흠뻑전'으로 이어졌다. 매년 작품 활동을 통해 수원지역의 미술학도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권 화백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제자들이 〈그림그리기 40년 아카

푸른지대 연습림에서 그림을 그리던 권용택 화백(1972년)

이브-권용택 초대전 기념미술전〉을 기획한 것이다. 두툼한 도록과 함께 말이다. 제자들이 십시일반으로 3차례 기획전과 도록을 제작했다. 권 화백은 "박태균을 비롯해 안택근, 최승일, 김수철, 경수미, 최세경 등 후배들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줬다."며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나와 같은 기회가 꼭 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과 제자는 필연이든 우연이든 맺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끊임없이 그리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권용택 화백과 박태균 원장의 만남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며 한 발 한 발 스승의 뜻을 뒤따르는 박 원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권용택 화백과 박태균 원장의 미술학원 시절 충북 속리산 화양계곡으로 여행갔을 때의 모습

우리 가족의 파장동 걸음마

윤유석 |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선임연구원

왜 수원으로 이사할건데?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야~" 14개월이 되는 아들이 요즘 한창 걸음마를 익히고 있다. 손을 잡고 두 세 걸음을 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방과 방 사이를 횡단하며, 자신도 신이 나는지 좋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닌다. 임신과 출산, 육아가 정신없이 이어지는 동안 벌써 2년이 지났다.

2012년 11월 18일. 이 날은 신혼집인 수원으로 처음 이사한 날이다. 대구와 광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지내던 신랑과 나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수원으로 잡았다. 수원에 직장이 있어 3년 정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었지만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막연히 '서울시민'이 좋았기 때문이다. 나를 만나러 수원을 몇 번 왔었던 신랑이 수원에 와서 살자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물어봤다. "왜?"

그해 여름 아기와 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놀면서 더위를 이겨냈다.

신랑은 나와 연애하면서 수원을 알게 되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서호, 농촌진흥청 근처가 우리의 데이트 장소였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한양도성 밑에서 살아서인지, 도성이 주는 느낌이 좋았나보다. 2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조가 구상한 조선시대 신도시는 오늘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수원으로 끌어들였다. 막상 집을 구할 때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더 많았다. 내가 나가는 연구소가 가까웠고, 서울 나가기도 좋다는 거리상의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셋값이 서울보다 쌌다.

집값이 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이사한 동네는 개발이 많이 안 된 북수원의 장안구 파장동이라는 동네였다. 그 전에 연구소를 오갈 때는 선뜻 발길이 닿지 않은 동네였다. 집을 구하기 위해 위로 올라와보니 빌라와 주택들이 제법 많았다. 광교산이 바로 뒤에 있어 초록색의 산이 눈에 들어왔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연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렇게 전세 계약을 맺고 10일 후에 우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수원으로 내려와 신혼의 첫날밤을 보냈다.

동네 사람 되기

"안녕하세요. 이 동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동네와 친해지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인사를 한 곳이 동네 슈퍼와 세탁소였다. "그래요, 반가워요." 뜬금없는 인사에 다소 당황한 듯했지만 이렇게 인사라도 하니 낯설기만 한 동네가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알아가기 시작한 동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훤해졌다. 단골로 가는 기름집, 떡집, 고깃집, 김밥집, 미장원이 생겼고, 수선을 잘 하는 수선집도 알게 됐다. 얼마 전 아이 돌떡을 근사하게 해서 돌리려고 과천의 유명한 떡집을 찾았다. 주말 영업을 안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네 떡집에 맡기게 됐다. 큰 기대 없이… 그런데 돌떡을 먹어보신 분들이 맛있다며 어디에서 했냐고 물으신다. '동네 떡집'에서 했다고 자랑하듯 대답해 드렸다. 우리 동네 약국은 설명도 친절히 해주고, 독한 약은 사려고 해도 팔지 않는 진짜 약사가 있는 약국이다. 동네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둡고 칙칙한 골목과 동네 분위기가 싫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기자기한 골목 산책을 즐긴다. 임신으로 배가 불러왔을 때는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운동을 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도 빠질 수 없는 산책 코스였다. 봄과 여름에는 식탁 위의 밥과 반찬을 그대로 싸가지고 집 근처의 만석공원으로 갔다. 풀밭 위에 펼쳐

놓고 먹는 한 끼 식사는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외식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신랑과 동네 뒤의 광교산에 올랐다. 내려오는 길에는 직접 재배한 채소를 내다 파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호박이며 고구마순, 파를 사와서 아침밥을 해먹기도 했다. 우리 동네에는 유난히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지난 여름에는 그 분들한테 싼 가격에 많은 채소를 얻어와 두고두고 먹기도 했다. 그 할머님들이 택배도 맡아주고 떨어진 이불도 걷어주셨다. 이렇게 난 이 동네 사람이 되어갔다.

인심 좋은 우리 동네, 아름다운 우리 동네

이사를 하고 딱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집안 사정으로 양가 어머님이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처음 해보는 육아에 어설픈 게 많았다. 특히 징징대고 잉잉대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몰랐다. 그때는 무조건 아이를 안고 나갔다. 우리 집 바로 맞은편이 동네할머님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평상에 앉아 계시던 할머님들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놀아주셔서 아이와 내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다.

불과 1년 전에는 상황이 달랐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님들의 수다소리와

동네 골목길은 우리 가족 산책길이 되었다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려, 참다못해 문을 박차고 나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그 사이에 끼어 아이와 같이 웃고 까르륵거리고 있었다. 1년 전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여름이 지날 즈음엔 아이와 놀아주시는 게 고마워 옥수수도 삶아드리고, 시원한 음료수도 갖다드리고, 케이크이나 빵도 갖다드렸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마을은 인심 좋은 곳이 아름답다. 인심 좋은 곳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는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의 말대로라면 나는 육아에 대한 지혜를 동네 할머님들한테 얻었으니, 파장동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사람들은 일터와 쉼터,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삶터를 꾸리고 싶어 한다. 수원화성, 융건릉, 만석공원, 광교저수지, 광교산으로 놀러 다니고, 용인과 안산으로 일하러 다니고, 교회에서는 영혼의 안식을, 인심 좋은 동네에서는 육신의 쉼을 할 수 있으니 수원에서의 삶터는 꽤 괜찮게 첫 걸음마를 뗀 것 같다.

동네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면서 아름다워진다

김두한, '협객(俠客)'의 정치인생과 수원

이동근 | 수원시청 학예연구사

'장군의 아들' 협객 김두한

'장군의 아들'하면 우리는 주저 없이 '김두한(金斗漢)'을 떠올린다. 김두한은 1920년 10월 만주벌판에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우리 현대사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다.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그를 '장군의 아들'로 '협객(俠客)' 또는 '의로운 주먹'으로 묘사하며 우리들의 뇌리에 강하게 인상을 남겨왔다.

일제강점기 협객으로서 경성의 종로 일대를 주먹으로 장악했던 김두한은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일본군 무기고를 점령하거나 치안에 힘을 보태며 활약하였다. 그러나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난 뒤 공산주의자 정진영, 만담가 신불출, 박헌영과의 인연으로 조선공산당의 전위대장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부친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김두한은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였다.

法廷서 金斗漢 割腹을 企圖

법정에서 할복을 기도한 김두한에 대한 기사 (「경향신문」 1948.2.13)

김구, 이승만, 김규식, 유진산 등이 대한민청을 조직하였는데, 김두한은 감찰부장 겸 별동대 총대장으로 반탁운동 등 좌우대립에서 우익의 선봉장 역할을 해나갔다. 좌우대립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김두한은 1947년 대한민청 사건으로 미군정에 의해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청의 재판과정에서도 좌우대립은 극심하였고, 김구와 지청천, 이범석 등이 김두한의 구명운동을 벌였다.

이후 김두한은 1948년 대한청년단의 감찰국장 겸 건설국장을 역임하였고, 독재 노선에

들어간 자유당 정권을 비판하다 1949년 6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치인생과 〈국회 오물투척 사건〉

김두한의 본격적인 정치인생은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로구 을구 4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자유당 입당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만 3선 개헌 때 개헌 공고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때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로구에서 노농당 후보,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충남 홍성에서 무소속,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로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연이어 낙선하였다. 그 뒤 한일협정 반대 등으로 제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용산구에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직후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으로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때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들까지 김두한 석방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무죄 선고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한국비료 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하자 국회에서 삼성 이병철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국무위원 등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라는 의정사상 희대의 사건을 일으켰다. 1966년 9월 22일 한국비료 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중 무소속 김두한은 국회발언대에서 "이병철이 밀수를 할

제1회 여야 민의원 친선 야구대회 개막식 : 맨 앞 김두한, 두 번째 민관식(1956.10.13,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파괴하고 재벌과 유착하는 부정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현 정권을 응징하고자 한다.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이를 합리화시키는 당신들은 총리나 내각이 아니고 범죄 피고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봐라."(국회회의록 中)라고 비판하며 국무위원 등에게 미리 준비한 똥물을 투척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두한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옥고를 치루다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치적 희생, 수원에서의 '반공법 위반'

〈국회 오물투척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풀려난 김두한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1967년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후보 박정희와 그해 2월에 발족한 통합야당인 신민당 후보 윤보선과의 재대결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치러진 6·8총선은 매우 혼탁하게 진행되었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지역구에서 131석 중 102석이나 차지했고, 전국구를 합치면 129석이 되어 개헌선을 넘어섰다. 신민당은 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공화당이 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데 비해 신민당은 장준하를 포함해 13명이나 당선되었다.

金斗漢씨 收監된날

弄談하며 泰然히

農協所는내別莊이라고

婦人朴씨와作別키스도

김두한 수감 기사(『동아일보』 1966.9.25)

김두한은 수원에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며 신민당 후보로 나섰다. 국회의원 선거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두한은 신민당 공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이 결정되었다. 김두한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수원시 매산동 제3투표소에 들어가 우보영 선거관리위원장의 따귀를 때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김두한은 1967년 5월 21일 오후 7시경 서둔동 172 앞길에서 가진 개인 선거 연설에서 북한의 발전상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두한은 연설에서 "이북은 산간벽지까지도 전기가 들어갔으나 한국농촌은 헐벗고 있다. 이북 농민은 공산치하에서도 여러분보다 잘 먹고 산다"라고 했다. 사실 해방 이후의 경제는 북한이 남한을 앞서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기간 시설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김두한의 연설은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이었는데, 반공법 위반이 된 것이었다.

金斗漢씨를 拘束
反共法違反혐의로
【水原】 9일새벽 1시20분 이곳 水原경찰서는 新民黨공천국회의원후보 金斗漢(49)씨를 반공법제4조위반혐의로구속했다。
金씨는 지난달21일 오후7시쯤 이곳西屯동17 2앞길에서가진 개인선거연설에서 북괴발전상을찬양한혐의다。
金씨는 이연설에서 『이북은 산간벽지까지도 전기가 들어가있으나 한국농촌은 헐벗고있다。 이북농민은 공산치하에서도 여러분보다 잘먹고산다』고 말했다는것이다。

반공법 위반 협의로 구속된 김두한에 관한 기사
(『동아일보』 1967.6.9)

6·8선거는 1960년 3·15선거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후유증을 낳았다. 이 선거는 관권·금권·선심공약이 한껏 동원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반공체제와 함께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그 울타리 안에서 김두한은 때 아닌 공산주의 찬양론자가 되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이후 김두한은 수원지구 선관위원장 최재형을 상대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소장에서 피고는 주민등록에도 없는 유령 유권자 7천 5백 9명을 조작하여 대리 투표시킴으로써 공화당 후보의 이병희를 당선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두한은 1971년 선거에서 수원의 공화당 후보로 다시 나온 이병희 후보의 찬조 연사로 나서며 신민당 김상돈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몇 년 뒤 적과의 동침을 한 셈이었다.

김두한이 수원에서 마지막 정치인생을 걸고 출마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수원에서의 출마는 김두한 정치인생의 마지막이 되었고, 협객의 정치인생사 한 페이지에 수원이 남게 되었다.

김두한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해오다 1972년 11월 19일 자택으로 귀가하는 중 고혈압으로 길가에 쓰러져 11월 21일 오전 9시 5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무허가 자택에서 향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조시원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광복장으로 치러졌다. 공교롭게도 그가 죽은 1972년 11월 21일은 박정희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유신헌법을 확정한 날이다.

김두한의 정치인생은 협객의 활동처럼 파란만장했다. 정치에 악역을 맡아 감옥도 많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가 정치인생에서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은 독재 정권의 반대였다. 김두한의 마지막 정치인생의 무대는 수원이었고, '장군의 아들'이란 기억과 함께 '협객의 정치인생'도 기억되는 이유이다.

옛날 팔달산의 추억

박찬진 | 前 주 레바논 대사

추억 속의 큰 봉우리

내가 수원을 떠나 서울로 온 게 매산국민학교 6학년인 1963년이었으니 어언 50년이 넘는다. 수원시절을 회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팔달산이다. 팔달산은 내가 너댓 살부터 살던 고등동 92번지 후생주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큰 봉우리의 산이다. 기념식, 운동시합, 공연 등이 자주 열려 어린 나 역시 많이 찾았던 추억의 장소다.

1950년대 수원시청 뒤로 현재 서장대 자리에 있던 하얀 집이 보인다(「근대 수원 100년」, 수원박물관)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옛날 팔달산에는 서장대 자리에 하얀 집이 있었다. 소방서와 문화원이 같이 사용한다고 했다. 돌집 수원시청 인근 소방서에 망루가 있긴 했으나, 높이가 낮아 '사통팔달(四通八達)'하는 위치에 있는 '하얀 집'에서 수원 일원의 화재 감시를 한 것이다. 한편 문화원에서는 매일 오후 다섯 시경 음악을 틀어주곤 했는데 멀리 수원역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저녁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 음악 선율이 감미로워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공설운동장에 담긴 이야기들

팔달산 서쪽 현재 경기도청 자리에 분지(盆地) 형태로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여기서 시청 주관 3·1절, 광복절 기념식, 수원의 중·고교간 축구, 야구시합이 정기적으로 열렸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면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행사와 경기를 지켜보곤 했는데, 특히 운동시합 때는 각 학교 응원단 밴드들이 경쾌한 음악을 신나게 불어댔다.

중요한 행사가 열리면 수원 시내 주요 식당들이 차양을 설치하고 멍석을 깔고는 임시 음식점을 차렸다. 메뉴는 설렁탕, 비빔밥이었는데, 시청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언젠가 준 식권 한 장으로 형과 같이 비빔밥 한 그릇을 나눠 먹은 적이 있다. 이런 운 좋은 날 빼곤 대개 거기서 음식 먹을 형편이 안 됐다. 그런 날은 다른 애들과 함께 설렁탕 끓이는 가마솥 바로 위 언덕에 엎드리곤 했다. 거기서 우리는 솟아오르는 설렁탕 증기와 냄새를 흡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어느 해에는 평택의 한 보육원 야구팀이 수원의 중학 야구시합에 참가했다. 그런데 야구팀이 점심으로 보육원 후원 미군들이 가져온 통닭을 뜯고 있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서로 군침을 흘리는 줄도 모르면서 난생 처음 통닭이라는 걸 구경하고 있었다. 애들이 어디 한둘이래야 그쪽에서도 '먹어 보라'는 소리라도 하지 않았겠나 싶다.

히루는 저녁에 해병대의 〈수원 시민 위안의 밤〉 행사가 열려 해병 연예대원으로 복무 중인 여러 유명 가수들이 왔다. 최갑석씨가 얼룩무늬 복장에 철모, 소총 등으로 완전무장을 하고 히트곡 「고향에 찾아와도」 등의 노래를 부르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매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1963)

그 밖의 화성에 얽힌 소극(笑劇) 같은 일화들

팔달산에는 화성 성벽 일부가 능선에 걸쳐 있어, 삼국시대 배경의 영화 촬영을 종종 팔달산에서 하곤 했다. 하루는 촬영을 하는데 배우가 내달음 치는 산토끼 한 마리를 쫓으며 "산토끼다!"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촬영이 중단된 적도 있다. 고기 먹기 힘든 시절의 한 소극(笑劇)이라고 할까?

내가 매산학교에 다니던 당시에 학교는 학생이 넘쳐 교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다. 마침 인근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있던 광명학교는 야간학교라 낮에 교실이 비기 때문에 매산학교가 이곳을 빌려 3학년들의 수업을 진행했다. 광명학교는 매산학교에서 좀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3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싸갖고 다녔

1949년 팔달산 아래 짓고 있는 광명학교의 모습(수원박물관 제공)

던 도시락을 가끔 교실 밖 산자락에서 먹으며 소풍 기분을 낼 수 있어 좋았다.

한번은 팔달산에 불을 내고 도망친 적이 있다. 나보다 5살 많은 우리 형과 또래들을 따라 나서면서부터다. 누군가 잠깐 성냥으로 불장난을 한 것이 순식간에 산불로 번졌다. 불을 끄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꺼지지 않자 형들은 내빼기 시작했고 나도 덩달아 내달렸지만 넘어지는 바람에 서두를 수가 없었다. 형의 질책 섞인 도움으로 간신히 우리 동네에 당도했다. 산불은 소방서의 출동으로 간신히 진화됐고, 얼마 후 신고를 받고 온 역전파출소 순경이 우리 동네를 찾아와 형들을 데려 갔다. 다행히 모두 미성년자라 훈계 방면 되었다.

수원을 떠나온 지 50년이 넘었다. 수원에서 지낸 시간이 떠나온 세월을 넘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수원은 여전히 나의 어린시절을 가득 담고 있는 추억의 보고다. 지금도 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수원을 찾는다. 수원에 대한 나의 추억 찾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전학간 해에 수원을 방문해 서호에서 옛 친구들과 함께(1967)

배구,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선회 | 경인일보 노조위원장

흔히 겨울스포츠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키, 스케이트, 스노보드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추운 겨울 안방에서 TV를 통해 스포츠 중계를 즐기는 시청자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농구와 배구 경기만한 것이 없다. 특히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프로배구에는 문성민, 김요한, 곽유화, 고예림 등 출중한 외모와 실력을 갖춘 얼짱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배구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레크리에이션에서 프로경기까지

1895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홀리욕시에 있는 YMCA의 체육부장 윌리엄 모건(William G. Morgan)은 과격한 농구보다 좀 더 유연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모색하던 중 배구를 창안하게 됐다. 배구의 초기 명칭은 민토넷(Mintonette)으로 불렸는데 테니스 경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윌리엄에 이어 미국의 할스테드(DR.Halstead)가 공을 가지고 네트를 넘겨 날려 보내는 게임을 창안해낸 후부터는 발리볼(Volley Ball)이라는 정식 명칭이 붙게 됐다.

배구의 창시자 윌리엄 모건(William G. Morgan)

이후 점차 경기가 확대되면서 1900년에 캐나다, 1905년에 쿠바에 퍼졌고, 1910년에는 16인제 배구가 필리핀에 보급됐다. 1913년에는 일본에 전해졌는데 그해 개최된 〈제1회 극동올림픽〉에서는 16인제 배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1916년 3월 25일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배구는 12인제였고 수년 후 다시 9인제로 바뀌었는데 이는 모두 YMCA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 처음 배구를 보급한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YMCA 고문으로 내한한 반하트가 청년회원들에게 배구경기를 소개, 지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당시 제일고보 체육교사인 스기하라가 학생들에게 처음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견해 모두 타당함을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 배구는 일정한 규칙이나 없이 양편으로 나뉘어 공을 주고받는 정도였다는 걸로 미루어 배구가 반하트에 의해 도입은 됐으나, 그것은 다분히 선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초등학교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배구 인구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백구의 대제전〉 대통령배 배구대회가 출범하게 된다. 1990년대 들어 국내 배구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 여자의 경우 대농과 현대의 양대 산맥이었던 체제가 무너지면서 호남정유를 시작으로 한일합섬, 흥국생명 등 신흥세력들이 부상하게 되고 남자팀의 경우 상무와 한양대, 성균관대 등이 코트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국내 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를 띠게 됐다. 2004년 10월에는 남자부 4팀, 여자부 5팀으로 구성된 프로배구가 출범했으며 지난해 프로 출범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 연고 프로배구팀

현재 남자 프로 배구단은 한국전력(수원), 대한항공(인천), 삼성화재(대전), OK저축은행(안산), LIG 손해보험(구미), 현대캐피탈(천안), 우리카드(아산) 등 7개의 팀이 있다. 여자 프로 배구단은 현대건설(수원), GS 칼텍스(평택), 인삼공사(대전), 흥국생명(인천), 도로공사(성남), IBK기업은행(화성) 등 총 6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수원을 연고로 한 한국전력 남자 배구단의 공식 명칭은

2014-2015V리그 현대캐피탈전 4라운드 경기, 현대캐피탈전 전승 행진

수원 한국전력배구단 경기

〈KEPCO 빅스톰 프로배구단〉이다. 1945년 〈남성전기 배구부〉로 출발해 1970~80년대 전국남녀실업배구연맹전,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국전력 배구단은 2008년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처음에는 팀명이 〈KEPCO 45〉였는데, 2012년 10월 〈KEPCO 빅스톰 프로배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적 쇄신을 거듭했다. 팀명을 바꾼 이들은 2015년 1월 숙적 대한항공(인천)을 꺾으며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따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한 시즌에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는 또 다른 팀인 현대건설은 올 시즌 여자부에서 1~2위를 다투며 무섭게 질주 중이다. 1977년 창단된 현대건설 배구단은 창단 이래 68년 동안

2014 코보컵에서 우승한 수원 현대건설 배구단

한국 여자 배구계를 이끌고 있는 명문 구단이다. 실업리그시절 대통령배 5회 우승, 슈퍼리그 5년 연속 우승 등 국내 최초 '겨울리그 10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프로배구 출범 후 2007년 준우승, 2010년 정규리그 우승, 2011년 통합우승, 2011-2012 시즌 준우승에 오르며 올 시즌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올 2월부터 수원시 4개구(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단답게 지역주민들과의 스킨십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올 4월까지 진행되는 2014-2015 시즌에서 두 팀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배구장을 찾아 수원연고팀을 응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올스타전(2014년, 수원시청 제공)

태장동 마을만들기, 100년 역사를 이어가다

류현희 | 前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마을만들기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붕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 스스로 삶의 공간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한동네 살면서 이웃간의 소통보다는 불통을 이야기 하는 사회, 마을과 분리된 개인의 삶이 자연스러워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마을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구성원인 개인, 그리고 대상지인 마을과 마을단위 소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삶의 방식인 문화, 환경, 도시, 건축 등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 마을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공유하는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 복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태장동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자투리 땅을 꽃길로 조성하는 태장동 주민들

에너지를 분출하는 지역이며, 100년 전 윗세대들의 마음을 나누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2015년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동네이다. 방죽머리 마을만들기로 불리는 태장동의 마을만들기 이야기를 살펴보자.

태장동 이야기

태장동은 법정동인 망포동과 신동을 포함하는 수원의 동쪽 끝에 자리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바지런한 동네이다. 갯물이 들어와 포구가 있었던 방죽머리, 농지를 따라 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는 우문리, 개나리가 많아서 신나무실(신동) 등 이야기가 많은 동네가 오밀조밀하다. 지금은 넓은 들판에 아파트가 들어차 있어서 옛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당선 망포역이 인접해 있고, 태장마루도서관, 박지성축구센터, YMCA 경기도 본부, 잠원종합체육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망포공원, 샘말어린이공원, 방죽어린이공원, 잠원종합체육공원, 당암어린이공원, 미래어린이공원, 박지성공원 등 소공원이 많은 동네이다.

태장동은 20,061세대 중에서 11,777세대 약 58%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 동네이다.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모습은 새롭게 조성된 깔끔한 도시의 풍경을 상징한다. 그런 면에서 태장동은 가장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지역이다. 또한 수원시에서 인구면에서 세 번째로 큰 동네이기도 하다.

태장동 마을만들기, 100년의 전통

태장동의 마을만들기는 2011년 6월 태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와 함께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태장동 역사를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1년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태장동에는 태장공립보통학교(현 태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과 유지들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위하는 전통이 있었다.

1914년에 태장면 영통리 오덕영은 빈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쌀을 기부했고, 1916년에는 면민과 면산업계에서 기부 또는 모은 돈으로의 면사무소를 신축하기도 했다. 1919년 오덕영은 태장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1938년에는 근로

보국단에서 농한기를 이용해 원수고개[元守峴]를 파내는 작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했다. 근로보국단은 일제에 의한 강제노력동원의 일환이었지만, 지역주민의 공동 노동력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공동체를 위하는 전통은 근대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며, 조선시대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방죽머리 마을만들기, 역사적 자부심을 넘어

태장동 마을만들기는 2011년 '마을지도'를 그려서 마을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이나 문제가 있는 지점을 파악하면서 구체화되었다. 2012년에는 둘레길을 만들었다. 노후화된 박지성도로 터널 꾸미기를 시작해, 물이 안빠지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부착했다.

2013년에는 망포고등학교에서 태장농협 구간 도로에 태극기 길과 바람개비 거리를 조성했다. 바람개비 거리에 설치된 조형물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고민을 함께 담았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 버려진 땅을 활용한 꽃길 조성에 이어, 국화향기 넘치는 마을만들기에 도전했다. 주민이 직접 가꾼 국화를 선보이는 '태장국화축제'도 개최할 수 있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만든 태장동 바람개비 거리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회원들의 역할은 제각각이다. 최중영 마을만들기 회장은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류선화는 미술전공을 살려 마을 벽화작업에 앞장섰다. 김영순은 둘레길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손볼 생각으로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범용은 국화재배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으며, 박영숙은 태장동 하면 국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노력을 기부해 태장동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종을 옮겨 심어 직접 국화를 가꾼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 그리고 노력들이 쌓여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마을의 변화가 눈으로 확인될 때마다 주민들의 어깨춤은 흥을 더해간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태장동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민센터,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결과이다. 태장동 주민들은 지역주민과 관이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태장동 마을주민의 유전자에는 마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세월따라 행정구역은 조금씩 변해왔지만, 그 마음만은 오롯이 지켜오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태장동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역사적 자부심을 넘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쌓아가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태장국화축제 모습

문화원이 한일

2014 제야 · 2015 새해맞이 경축 타종

2014년을 보내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 행사를 2014년 12월 31일 23시 30분부터 종로 여민각에서 개최하였다. 수원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이영숙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추위 속에서도 많은 수원시민들이 참석해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염원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타종식에 참가해 새해를 맞는 의미를 더했다.

제58차 수원문화원 정기총회

2015년 2월 25일(수) 수원문화원 정기총회가 호텔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에 진행된 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안건으로 201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제26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을미년(乙未年)의 첫 보름인 정월대보름(2015.3.5)을 맞아 2015년 2월 28일(토)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제26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연만들기, 제기만들기, 널뛰기, 떡메치기, 윷놀이 대회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부럼깨기, 지신밟기, 소원쓰기를 통해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건강을 빌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원이 할일

2015 인문 역사 탐방

2013년과 2014년 200회에 걸쳐 진행된 인문학 역사탐방이 〈인문 역사 탐방〉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한 2015 〈인문 역사 탐방〉은 3월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4월 충남 홍성, 5월 경북 상주, 6월 전북 김제, 7월 강원 철원, 8월 강원 봉평, 9월 전남 구례, 10월 경기 연천, 11월 충남 서천으로 매주 목요일 탐방이 예정돼 있다.

매주 목요일에 출발하는 〈인문 역사 탐방〉은 출발 직전 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 신청 시 날짜와 탐방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탐방비: 30,000원　　※접수처: 수원문화원(031-244-2161~3)

제11차 해외문화탐방 '오색 물빛의 香宴(향연), 구채구를 품다' – 중국 성도/구채구/아미현/송반현

2015년 5월 29일(금)~6월 3일(수) 4박 6일간 중국 사천성의 성도(成都), 구채구(九寨沟), 아미현(峨眉县), 송반현(松潘县) 일대로 해외문화탐방을 떠난다.

성도는 중국 삼국시대 유비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사천성의 중심도시이다. 유비현덕과 제갈공명의 묘가 안치된 사당 '무후사'와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인 '낙산대불', 수십 개의 폭포와 호수로 이뤄진 세계문화유산 '구채구 풍경구', 송반현 남서부 웅대한 석회 못과 폭포 경관을 자랑하는 '모니구 풍경구', 당대 시인 이백이 아름다움을 칭송했다는 아미현(峨眉縣)의 '아미산' 등 중국 남서부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탐방한다.

※문의: 수원문화원(031-244-2161~3)

바로잡습니다

· 2014년 겨울호 「수원 축제의 꽃, 수원화성문화제」에서 60쪽의 '백미혜(경기일보 기자)'를 '백미혜(경기신문 기자)'로 바로잡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랑 놀자!

국내 주요 문화시설 최대 1800곳 참여

'문화가 있는 날'이란?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다함께 **문화랑 놀자!**

2015년 이번 봄, 문화가 있는 날은?

3월 25일, 4월 29일, 5월 27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해 보세요!

MEMASU 문화가 있는 날 검색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은 네가 밥을 사라.
영화표는 내가 산다!

둘이서 영화를 볼 때면 우리는 밥을 사거나
영화 표를 사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표를 사는 쪽을 추천한다.
만원으로 2명이 영화를 보는 마법이 펼쳐질 테니!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저녁 6~8시 8000원 → 5000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가볼 텐가?!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미(美)란 무엇인가.
모든 정답은 그 곳에 두고 왔으니…
후후… 한번 찾으러 가볼 텐가?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 미술관
할인 및 무료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쏜다!

가업처럼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응원하는 팀이다. 자, 당신의
응원팀을 자녀에게 전해줄 기회가 왔다.
함께 자! 경기장으로!

스포츠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람료 50%할인

궁에서 온 그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아… 왕처럼 살고 싶다…….'
그럴 땐 고궁에 들러 왕의 기분을 내보자!
왕에게 누가 입장료를 받겠는가!
이리 오너라! 주상 전하가 납신다!

문화재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봄따라 라따 라따~ ♩
공연 보러 가보자~ ♬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분위기 있는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겨보자. 내로라하는 주요
공연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니.
좋아, 오늘 밤은 이걸로 정했다!

공연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당신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다!

집, 학교, 회사,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나만의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보자.
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 회식,
재능 기부, 작은 운동회……!

문화가 있는 날, 24시간이 모자라~ ♪ ♬

수강생 모집 안내

문화학교

NO	문화학교	요일	강의시간	지도
1	경기민요반	화·금	11:00 ~ 12:30	김옥자
2	규방공예반	화	14:00 ~ 16:00	나정희
3	노래부르기반	목	10:00 ~ 12:00	유진표
4	도자기공예반	금	14:00 ~ 17:00	박준수
5	맥간공예반	월	13:00 ~ 15:00	이수진
6	모듬북반(초급)	화·목	09:00 ~ 11:00	김옥기
7	모듬북반(중급)	화·목	(화)12:40~14:40 (목)11:00~12:40	김옥기
8	사물놀이반	월·금	15:00 ~ 17:00	김현수
9	서예반	수	10:00 ~ 12:00	안효영
10	서예반(장안구 분원)	월	10:00 ~ 12:00	김진숙
11	전통(한복)의상 만들기반	월	14:00 ~ 17:00	이성섭
12	태평소반	화	19:00 ~ 21:00	이한영
13	하모니카반	수	13:30 ~ 15:30	김혜숙
14	한국무용반	월	10:00 ~ 12:00	여지영

동 아 리

NO	동아리	요일	모임시간
1	문미회(유화)	목	10:00~
2	비르투오조	화·금	10:00~13:30
3	수원·화성소리사랑	목	13:00~15:00
4	전통창작타악 "난장"	화·목	15:00~17:00
5	짓(한국무용)	수	10:00~12:00
6	태평소 "애채"	수	19:00~21:00
7	한땀두땀 우리한복	금	14:00~17:00
8	소리뜰(하모니카)	목	13:00~15:00
9	We 앙상블(오카리나)	월	10:00~12:00
10	Funny 우쿨렐레	수	13:00~16:00
11	사계절 봉사회	둘째,넷째 목	10:00~

고색향토문화전시관

NO	문화학교	요일	강의시간
1	석고방향제 만들기반	수	10:00~12:00
2	캘리그라피반	수	14:00~16:00
3	맥간공예반	금	10:00~12:00

수원민속예술단

요일	시 간
월	13:00~15:00

수원문화원 산악회

요일	시 간
둘째주 토	07:00~

수원문화원 가족마당
http://cafe.daum.net/suwon110

▶ **모집방법** : 수시 / 방문 접수
▶ **수 강 료** : 분기별 30,000원
회 비 : 분기별 15,000원

▶ **문의전화**
수원문화원 031) 244-2161~3
고색향토문화전시관 031) 292-2161~2

FIND YOUR SIGNATURE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 2,820만 화소 BSI CMOS 이미지 센서 • 초고속 연사(초당 15fps)와 초고속 AF(0.055초) • 고화질 4K/UHD 동영상 촬영 • 견고한 마그네슘 합금 바디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조하세요.

삼성전자 SAMSUNG

힘내라! 대한민국
I Love KOREA

평생 함께 하는 은행
IBK기업은행이 국민 모두의 희망을 지켜갑니다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얼굴, '희망로봇-기은센'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평생파트너로, 평생 당신곁에서 소중한 희망을 이뤄줄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